

야구 보다 보면 이런 순간 자주 오잖아. 오늘 경기 보고 나서 “다음에 누가 언제 불지?”를 바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헤매다 보면 마음이 먼저 끊겨. 특히 mlb중계는 한국이 시차 때문에 시작 시간이 새벽이나 오전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을 놓치면 진짜로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에 집중할게요. MLB 공식 schedule 페이지를 기준으로 “오늘 경기”랑 “다음 경기”를 한 번에 잡아내는 방법. 야구중계사이트 둘러보다가 끝내 시간 확인 실패하는 패턴을 줄여보자.

왜 MLB는 스케줄 확인이 먼저일까

KBO는 비교적 한국 시간대에 익숙한 편인데, MLB는 시작 시간이 훨씬 더 이르게 잡히는 일이 흔해요. 한국은 KST(UTC+9)이고, 미국 동부시간(ET)은 시즌에 따라 UTC-5 또는 UTC-4를 쓰니까, 한국이 대략 13시간 **실시간 mlb 중계** 또는 14시간 빨라져요. 이 차이 때문에 같은 “오늘”이라는 단어가 시청자 기준으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 기준으로 저녁 경기가 떠 있어도 한국에서는 다음날 아침부터 낮 시간까지 이어지는 식으로 체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MLB 경기 보기는 단순히 “오늘 밤 경기”가 아니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내 언제 시작 하나”가 핵심이 되죠. 이런 이유로, 야구중계나 야구중계사이트를 보더라도 결국 공식 일정이 기준이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변동(우천 취소, 순연)이 생기면 중계 페이지도 따라 움직이니깐요.

MLB 공식 schedule 페이지에서 먼저 잡을 것

MLB는 schedule 페이지에서 당일 경기와 팀별 일정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페이지에 표시되는 오늘”이 한국 기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MLB가 운영하는 기준에 맞춰 반영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스크롤만 하다 보면 “내가 보고 싶은 오늘”이 아니라 “현지 기준 오늘”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쓰는 방식은 이거예요. 일정 페이지를 켜올 때, 팀명이나 경기 목록을 보며 감으로 찾기보다, 먼저 화면에서 오늘 날짜로 묶인 경기들을 훑고 바로 다음 날짜로 넘어갈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 하나만 찾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경기까지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와요.

여기서 꼭 확인할 포인트는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어요.



- 경기 시작 시각(한국 시간으로 체감이 언제 오는지)
- 경기 여부 변화(취소나 순연 같은 변동)
- 중계 확인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공식 일정 반영” 여부

- 오늘 경기 이후 다음 경기로 넘어가는 연결 지점(다음 날짜 또는 다음 매치업)

이 네 가지가 잡히면, mlb중계를 보려고 애쓰는 시간이 확 줄어요.

“오늘 경기”를 찾는 실제 손놀림

이제 진짜로, schedule 페이지에서 오늘 경기를 잡는 흐름을 말해볼게요. 여기서는 특정 날짜의 경기 내용을 제가 임의로 단정하지는 않을게요. 대신 “어떻게 보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일정은 해마다 바뀌고, 시즌 중에도 변동이 생기니까요.

1) schedule 페이지를 열고 “오늘”로 보이는 구간을 먼저 찾습니다.

2) 경기 목록이 쭉 나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팀 매치업이고 그 다음이 시작 시간이에요. 3)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시작 시간을 한국 시간 감각으로 대충 계산해두는 게 좋아요. 한국이 ET보다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르다는 점만 머릿속에 뒀도, “이거 새벽이네, 오전이네” 정도는 바로 감이 옵니다. 4) “내가 보고 싶은 경기”가 목록 안에 없으면, 대부분은 날짜가 한 번 더 넘어간 겁니다. 그럴 때는 다음 날짜로 넘겨서 같은 방식으로 찾으면 끝.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다음 날짜로 넘어가는 손을 미리 준비해두는 거예요. 야구는 연속성이 있어서, 한 경기 끝나면 바로 다음 경기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이 습관이 있으면 다음 경기 확인도 자동으로 붙습니다.

“다음 경기”를 같이 잡는 요령

사실 다음 경기는 별거 아니에요. 오늘 경기 목록을 보면서 같은 페이지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하면 됩니다. MLB schedule 페이지는 당일 경기와 팀별 일정 흐름을 제공하니까, 오늘 경기에서 막 끝나는 지점이 “다음 경기”와 바로 붙어 있게 설계된 편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 오늘 경기 목록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훑고, 바로 이어지는 날짜(다음 날 구간)로 넘어가서 확인
- 오늘 보고 있는 팀 기준으로 팀별 일정 흐름을 따라가서 다음 경기 매치업을 확인

둘 중 뭐가 더 편하냐는 취향인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확실하면 팀별 흐름이 빠르고, 그냥 오늘 야구 전반 흐름을 보고 싶으면 날짜 기준으로 훑는 게 더 편해요. 결국 핵심은, 오늘만 보고 끝내지 않는다는 태도죠.

또 하나. MLB는 정규시즌이 길고, 시작 시점도 딱 고정된 느낌이 있어요. 2026 정규시즌은 3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뉴욕 양키스전으로 시작하고, 3월 26일이 본격적인 Opening Day로 잡혀 있어요. Opening Day에는 첫 경기 시작 시간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4:00 p.m. ET로 공지된 경기나 8:05 p.m. ET 같은 경기들이 함께 안내된 걸로 알려져 있고, 한국으로 오면 시차 때문에 새벽이나 오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시차 패턴”을 한 번 경험해두면, 이후엔 schedule 페이지를 볼 때도 시작 시간이 보이자마자 “아, 이건 한국으로 언제야”가 대충 계산돼요. 그러면 다음 경기로 넘어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야구중계 일정 놓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옮겨 볼 때 제일 자주 하는 실수

여기서 많이들 넘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시작 시간을 봤는데도 “내가 착각한 날짜”에 매달리는 거예요. MLB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편성이 기본이고, 한국은 앞서 말한 것처럼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르니까요. 시즌 시기마다 ET가 UTC-4로 바뀌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서, 계산이 1시간 정도 어긋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시”보다 “이게 오전인지, 점심쯤인지, 새벽인지” 감각부터 잡는 게 실전에서 더 안전해요.

한국 시간 변환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단순화해요.

- 한국(UTC+9)에서 ET(UTC-5 또는 UTC-4)만큼 앞선다, 즉 한국이 더 빠르다
- 그래서 미리 “13시간 빠르면 대충 이렇게, 14시간 빠르면 이렇게” 두 감으로 잡아둔다
- 분 단위까지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시청을 위한 알람 시간만 안전하게 잡는다

이 방식은 완벽한 수학 계산이 아니라 “시청 실패를 줄이는 실전형”이에요. 새벽에 경기 보면 알람도 몇 분 늦으면 멘탈이 같이 흔들리거든요.

야구중계사이트에서 해매지 않는 최소 기준

여기서 한 번 현실 얘기할게요. 야구중계사이트는 많고, 화면도 빨라요. 그런데 빠른 만큼 정보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 일정이 업데이트됐는데 중계 안내 화면이 아직 반영이 덜 된 경우요. 또 우천 취소나 순연 같은 변동이 생기면 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야구중계사이트를 “확인 도구”로 쓰기보다는 “편한 접근” 정도로만 두는 편이에요. 핵심은 공식 일정 이 변동을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거고, 실제 시청을 결정하는 근거는 schedule 페이지가 되는 게 맞아요. KBO도 월별 일정, 일일 일정, 순위 페이지를 통해 경기 시간, 결과, TV/RADIO 편성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MLB도 schedule에서 당일 경기와 팀별 흐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즉 큰 틀에서는 둘 다 “공식이 1차 기준”이에요.

정리하면, [야구중계사이트](#) 야구중계사이트를 열더라도 마지막으로 공식 schedule에서 시작 시각과 경기 진행 여부를 한 번 더 짚는 게 좋아요. 이게 습관이 되면, 다음 경기까지 챙기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늘 + 다음 경기” 패턴을 루틴으로 만드는 법

아예 루틴으로 굳히면 편해요. 특히 MLB는 한국에서 시간대가 이른 편인 날이 많아서, 매번 새로 확인하면 뇌가 피곤해져요. 저는 체크 루틴을 “짧게, 한 번에, 실수 줄이기”로 가져갑니다.

딱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오늘 경기 확인이 끝나는 순간, 곧바로 다음 경기의 시작 시각이 머릿속에서 연결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schedule 페이지에서 날짜를 넘길 타이밍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 경기 목록을 다 훑은 다음, “다음 날짜 구간”을 바로 보는 습관. 또는 “오늘 경기 보는 팀”의 다음 일정으로 바로 이동하는 습관. 둘 중 하나만 잡아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 루틴이 더 잘 먹히는 구간이 있어요. 시즌 초반, 예를 들면 정규시즌이 시작되고 Opening Day 전후처럼 일정이 확실하게 잡힐 때요. 반대로 우천 취소나 순연 같은 변동이 잦은 구간에서는, 다음 경기 확인을 “오늘 본 다음에 바로 다시”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날 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다음 경기 타이밍이 미세하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공식 schedule이 업데이트를 반영하니 그걸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KBO랑 같이 보는 사람이라면, 스케줄 보는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야구중계는 KBO와 MLB를 같이 찾는 수요가 큰 편이잖아요. 실제로 KBO는 3월 말에 개막하는 해가 있고, 정규시즌도 길게 이어져요. 2026 KBO 정규시즌은 3월 28일 개막이고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를 치르는 걸로 공지되어 있어요. 개막전이 잠실, 대전, 문학, 대구, 창원 같은 5개 구장에서 열린다는 내용도 같이 알려져 있고요.

또 KBO 정규시즌 잔여 편성 공지에 따르면 9월 15일 이후에는 평일 18:30, 토요일 17:00, 일요일 또는 공휴일 14:00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한국 야구중계는 시즌 후반부로 가면 시간대가 고정되는 느낌이 있어서, 체감상 “언제 봐야 하는지”가 비교적 쉽게 잡힙니다.

반면 MLB는 시차 때문에 더 변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같은 날짜라 해도 한국 기준 시간표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KBO를 보다가 MLB를 끼워 넣을 때는 더더욱 schedule 페이지 확인이 중요해져요. 오늘 경기 시작 시간이

내 시간표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다음 경기가 언제 이어지는지까지 한 번에 잡아야 일정이 덜 꼬입니다. 이게 결국 mlb중계에서 놓치지 않는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진짜로 헷갈리는 질문들

사람들이 schedule을 볼 때 은근히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첫째, “내가 보고 싶은 오늘이 맞는데 왜 시간이 안 맞지?”

대부분은 한국 시간 기준이 아니라, MLB 페이지가 잡는 날짜 경계나 시차 체감이 달라서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페이지에 표시된 시작 시간”을 한국 감각으로 재번역하는 과정이에요. 계산이 조금 빗나가도, 적어도 새벽인지 오전인지 감각만 맞춰도 실패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둘째, “다음 경기 찾기 귀찮은데 그냥 한 번에 다 나오게 못 봐?”

Schedule 페이지는 당일 경기와 팀별 흐름을 함께 주니까, 한 번에 보려면 날짜 이동이나 팀별 이동을 같이 써야 해요. 오늘만 보고 끝내면 다음 경기 확인은 매번 다시 하게 됩니다. 결국 행동이 답이에요. 오늘 경기에서 “다음”으로 연결하는 동작을 한 번만 익히면 됩니다.

셋째,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안내를 믿으면 안 돼?”

보통은 되지만, 변동이 생기면 엇갈릴 수 있어요. 공식 일정 반영 여부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중계 화면은 편하게, 결정은 공식에서” 이 흐름을 추천해요.

짧게 체크하고 다음 경기까지 넘어가자

마무리 느낌으로 길게 늘어놓기보다,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게만 말할게요. MLB schedule 페이지를 열고 오늘 경기를 찾은 다음, 곧바로 다음 날짜 구간으로 넘어가거나, 오늘 본 팀의 팀별 흐름으로 이동해서 다음 경기를 확인하면 끝입니다. 이걸 딱 한 번 습관으로 만들면, mlb중계 보다가 “다음 경기는 언제지?”로 흔들리는 시간이 확 줄어요.

그리고 시간을 놓치는 사람들은 보통 “시차”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한 번만 하고 끝내서 틀립니다. 오늘 경기와 다음 경기까지 한 번에 묶어 보면, 야구 보는 날이 훨씬 매끄럽게 굴러가요.

이제 화면에서 오늘 경기 시작 시각을 잡고,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세요. 그 순간부터는 야구가 시작된 거예요.